

금융지주내 효자는 역시 은행... 증권 > 카드 > 보험

(64.3%) (18.1%) (12.8%) (3.7%)

금감원, 2018 경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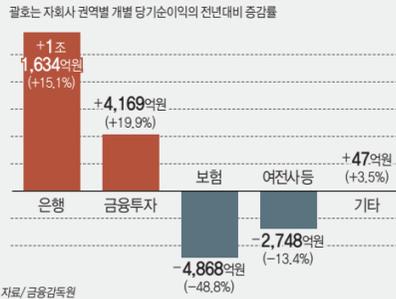
9개지주 순익 11.6조... 6.8% ↑
총자산 8.8% 증가 2000조 돌파

지난해 금융지주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은행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절대적인 가운데 금투투자권역에서도 수익이 늘어났다. 금융지주사의 연결 기준 총자산은 2000조원을 돌파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중 9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농협·B NK·DGB·한국투자·메리츠·JB)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11조6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자회사 권역별로는 은행은 순이자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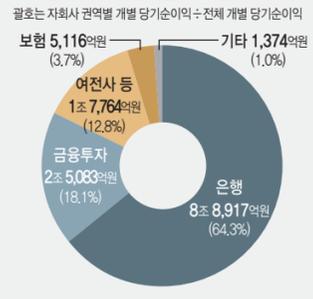
2018년 자회사 권역별 이익 증감(전년동기비)



진(NIM) 개선 등으로 15.1% (1조1634억원), 금융투자도 수수료 수익 증가 등으로 19.9% (4169억원) 늘었다.

반면 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으로 48.8% (4868억원), 여전전문회사 등은 카드사의 일회성 이익증가 요인 소

2018년 자회사 권역별 이익규모와 비중



멸 등으로 13.4% (2748억원) 줄었다. 권역별 이익 비중은 은행이 64.3%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투자 18.1% ▲여전사 등 12.8% ▲보험 3.7% 순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의 연결 총 자산은 2068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8.8% 증가했다.

권역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3.8%로 가장 높고 ▲금융투자 11.0% ▲보험 8.8% ▲여전사 등 5.7% 순이다.

지난해 말 기준 바젤Ⅲ 기준을 적용 받는 금융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38%, 13.00%, 12.29%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0.03%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지주사의 건전성도 좋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74%로 부실채권(NPL) 상각 및 매각 등으로 전년 말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총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전년 말 103.74%에서 116.77%로 상승했다.

금융지주의 부채비율은 32.22%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늘면서 전년 말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이종레버리지비율(자회사 출자총액/자본총계)도 122.86%로 전년 말 대비 1.88%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지주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시장 불안요인은 잠재된 상황이며, 우리금융지주 출범으로 지주회사간 외형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지주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회사는 총 9개사다. 자회사 등 소속회사 수는 209개사, 점포 수는 7204개, 임직원 수는 12만1125명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한국금융투자협회

증권사내부통제 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증권사내부통제'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효과적인 내부통제조직 구축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실무인력 양성 단계 교육과정이다.

오는 2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기간은 내달13일부터 27일까지다. 총 5일간 1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2일(월·수), 야간으로 진행된다. /김유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아제르바이잔 실무자 연수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진행중인 아제르바이잔 지식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아제르바이잔 자본시장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업무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아제르바이잔 금융시장감독원(FIMSA), 바쿠증권거래소(BSE), 중앙예탁결제기관(NDC) 임직원 8명이 참석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 청산결제시스템, 증권대차·레포(Repo) 시스템 및 펀드산업 지원인프라의 개발·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ETF 자산배분 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ETF를 활용한 글로벌 자산배분'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자산배분 방법론, LDI(Liability Driven Investment) 및 시뮬레이션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교육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며 총 3일간 9시간,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김유진 기자

화장품株, 中수출 감소에 울고 온라인채널 증가에 웃고

한국콜마·애경산업 '긍정적' 평가 아모레퍼시픽·잇츠한불 등 하락

국내 주식 시장의 화장품주 가운데 중국 수출, 온라인 채널에 역량을 키우고 있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반면, 내수 채널에서 사업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의 주가는 부진이 예상된다.

1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 화장품 업종 주가가 전체 시장 대비 소폭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1분기 실적개선이 예상되는 클리오의 주가가 2.1% 상승했고 반대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모레퍼시픽, 에이블씨엔씨, 잇츠한불, 코스메카코리아, 토니모리 등은 주

가 하락이 지속됐다.

최근 화장품주에서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클리오가 꼽힌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오프라인 사업 철수와 도매 매출 부진에 따른 실적 저하를 사업구조 개선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클립클리오, H&B, 온라인, 면세점 채널이 고루 성장하면서 1분기 연결매출 494억원, 영업이익 14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클리오의 중국 법인 영업손실은 약 7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오프라인 채널과 재고, 인력 구조조정을 거쳐 영업손실폭이 10억원 내외로 크게 줄어들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브랜드력을 갖춘 LG생활

건강, 저마진 제품 비중이 안정화되고 있는 한국콜마, 대표 브랜드(Age 20's)의 꾸준한 중국 수요를 유지하는 애경산업 등의 성장세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 사업이 소폭 성장하고 헬스케어 부분이 연결로 계상되면서 매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투자는 30억원의 영업손실을, KTB투자증권은 1억원의 흑자전환을 각각 예고했다.

배송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에서 브랜드력이 유지되는 업체에 한해 양호한 실적을 지속할 전망"이라며 "럭셔리 브랜드에 집중하고 있는 LG생활건강, 확실한 히트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애경산업의 중국 수요가 많

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대표 화장품기업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1분기 감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리따움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오프라인 점포 매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매출이 불안하다는 분석이다. 설화수, 헤라 등 프리미엄브랜드가 성장하고 있지만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니스프리, 라네즈, 마몽드 등의 매출이 역성장하고 있어서다.

신수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아리따움의 트래픽 증가, 중국 이니스프리의 4월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통한 1~2선 도시 매출 성장률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NH농협카드사는 지난 3월 29일 서울 NH농협은행 용산별관에서 '제3회 카드고객행복센터 고객현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NH농협카드

NH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 고객현장 선포식

NH농협카드사는 지난 3월 29일 서울 NH농협은행 용산별관에서 '제3회 카드고객행복센터 고객현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카드고객행복센터 상담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고객현장 선포 및 서비스 행동지침 제창 등을 통해 직원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고객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는 직원들의 실천의지에서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카드고객행복센터

는 상담능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카드전용 지식 검색 사이트 '지능형KM S시스템'을 오픈했고, '감성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콜센터 통화품질향상에 기여했다.

NH농협카드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응대의 최접점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짐하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올해는 카드업계 최우수 콜센터로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GS건설 '노랑대교' 토목구조물 공모 금상

GS건설은 지난 29일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하는 '2019년 토목의 날 기념 행사'에서 노랑대교가 '올해의 토목 구조물' 공모전 금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노랑대교는 세계 최초 경사 주탑 현수교다. 노랑대교가 지나는 노랑해협은 노랑대첩이 벌어진 곳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23년 23승' 승리(Victory)의 의미를 상징해 세계 최초로 V자 모양의 경사 주탑을 만들었다.

또 이순신 장군의 전술인 학익진을 모티브로 학이 날개를 활짝 핀 이미지를 형상화한 주탑과 케이블을 적용했고, 바닷물에 비친 주케이블은 학익진의 전투 대형을 표현했다. 이처럼 노랑대교는 역사적의미를 담은 수려한 경관성과 기술력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는다.

아울러 주탑을 육상에 둔 현수교로 설계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인접한 청정해역의 해양 생태계 파괴 문제를 차단한 친환경적인 교량이기도 하다. 주탑 높이는 148.6m로 건물 50층 높이이다. 주탑에 8도의 경사각을 적용해 기존 수직 주탑 대비 축경간 주케이블의 장력을 줄여 케이블을 지지하는 구조



지난 29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9 올해의 토목구조물'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한 GS건설의 고병우 인프라수행본부장(오른쪽)과 대한토목학회 이종세 회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물인 앵커리지 크기를 11% 감소했다. 케이블과 앵커리지까지 거리도 15m 줄여 공사비를 절감, 경관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고병우 GS건설 인프라수행본부장은 "세계 최초로 적용된 경사 주탑과 3차원 케이블을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완공하면서,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에서 기술 공유를 요청받을 만큼 노랑대교는 국내 토목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